KWC 2022 수상 미수입 와인 열전

GEORGIA, TURKEY, HUNGARY

2022년의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KWC)는 그 어느 때보다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갈수록 국내 와인 시장에서 다양한 국가의 와인들이 소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조지아 와인을 비롯해 조금은 생소한 헝가리와 터키 와인까지, KWC 2022에서 성과를 거둔 미수입 와인들을 소개한다.

글 〈Wine Review〉 편집팀 사진 장영수, 각 와이너리 홈페이지

Ergenekon Ecologic Vineyards

에르게네콘 에콜로직 빈야드

와인 기자인 Şyla Ergenekon과 와인메이커 남편 Çağatay가 와이너리 오너로 변신해 터키 갈리폴리 반도에서 유기농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 소규모 와이너리로, 그들은 터키에서 가장 인기 있고 널리 재배되는 두 가지 포도 품종인 까베르네 소비뇽과 시라를 포함한 프랑스 품종에 집중하고 있다. Ergenekon은 Singularis라는 레이블로 각 포도의 품종 와인을 생산한다. Reguis는 와이너리의 세 가지 프리미엄 라벨을 위해 이 두 포도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Bona Dea Rouge 보나 데아 루즈

국가 터키 **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 **특징** KWC 2022에서 Gold 메달을 수상했을 만큼, 저력 있는 와인이다. 터키의 다르다넬스 해협 북부의 유기농 와인으로 만들며, 구조화된 탄닌과 단단한 산도가 뛰어나다. 달콤하고 따뜻하면서도 스파이시한 아로마와 체리와 자두, 블랙 커런트, 월계수 잎 등의 복합미가 살아있는 와인이다.

Duruji Valley
두루지 밸리

1533년에 설립된 두루지 밸리의 포도밭은 조지아에서 가장 인정받는 와인 산지인 카케티(Kakheti)(국가 와인 생산량의 70%) 중심부에 설립된 곳이다. 떼루아는 주로 점토질 암석인 셰일로 이루어져 있어서 와인에 약간의 산도와 약간의 미네랄리티, 부드러운 탄닌을 제공한다. 두루지 밸리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모두 유기농이다. 포도나무 관리에 살충제나 제초제가 사용되지 않으며 유황 또는 기타 첨가제의 사용 또한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Duruji Valley, Aleksandrouli 두루지 밸리, 알렉산드로울리

국가 조지아 **품종** 알렉산드로울리 **특징** 조지아의 토착품종인 알렉산드로울리로 만들었다. 붉은 과실향이 우세하면서도 미네랄리티와 스파이시한 후추 향이 돋보인다. 밸런스가 뛰어나고 대담하면서도 균형이 잘 잡혀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겁지 않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와인으로 가성비 뛰어난 조지아 와인을 대표하며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 받고 있다.

Duruji Valley, Kisi 두루지 밸리, 키시

국가 조지아 **품종** 키시 **특징** 더운 여름에 매우 잘 어울리는 화이트 와인으로, 옅은 밀짚 색상을 띤다. 가벼우면서도 사과 향, 배 향 등의 프루티한 아로마가 인상적인 와인이며, 드라이하면서 미디엄 바디와 미디엄 산도를 가지고 있다. 파스타나 생선 요리와 매우 잘 어울리며 잔당감을 느낄 수 있어 기분 좋게 입 안에서 마무리된다.

Vinatus Winery
비나투스 와이너리

Vinatus
PINCÉSZET ÉS FOGADÓ

헝가리 세게드의 기업가였던 László Kovács는 격변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와인 한 잔이 가져다주는 평화에 깊은 감명을 받아 와이너리를 설립하였다. 첫 수확은 2009년에 이루어졌으며 헝가리에서 만들어진 오크 배럴을 3년 동안 자연 건조하여 사용한다. 현재 헝가리 Villány에 8헥타르의 와인 밭을 소유하고 있다. 와이너리의 역사는 깊지 않지만, 여러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며 양질의 와인을 생산해 내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Vinatus, Crassus 비나수스, 쿠라수스

국가 헝가리 **품종** 까베르네 프랑,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특징** 크라수스는 풀바디, 강력함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따온 이름으로 와이너리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보르도 블렌드 와인이다. 블랙베리, 카시스, 매실잼 향과 같이 복합적이면서도 조화로운 풍미를 가지고 있다. 드라이하지만 부드러운 탄닌이 특징이다.

Barra Winery
바라 와이너리

BARRA WINERY

2007년, 0.4ha의 자가 소유 포도밭과 2ha의 임대 포도밭이라는 매우 작은 규모로 포도 재배를 시작했다. 현재 8ha 면적의 포도밭에서 푸르민트, 하르슐레벨뤼, 시라 등 다양한 품종으로 와인을 양조하고 있다. 모든 포도는 철저하게 손수확되며 화학 처리를 최소화해, 친환경적인 와이너리로 거듭나고 있다. 바라 와이너리는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토카이 와인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Barra Tokaji Aszúeszenica 바라 토카이 오스주에제니카

국가 헝가리 **품종** 푸르민트, 린덴잎 **특징** 토카이 오스주에제니카는 우아하고 균형 잡힌 와인이다. 선별된 오크배럴을 사용하여 감귤류가 지배적이며 커피와 스모크 향이 가미되었다. 디저트와 함께 혹은 단독으로 먹는 것을 추천한다. 보트리티스 와인의 우아하고 깊은 풍미와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